



12면

대나무 한올 한올... 합죽선 작품 기획전시

전주매일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음 3월 3일) 제27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보행자·교통약자 보호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17일부터
도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h
보행안전 필요 이면도로는 30km/h 지정

도심부,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주

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그간 전북도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장비, 도민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도내 14개 시·군 도심부(주거, 상업, 공업)에 54억8,800만원을 투입,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는 부산광역시의 실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안전속도 5030' 시

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차이는 크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중앙대로에서 실시한 실증 주행조사 결과, 도심부 도로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구간을 주행할 때 불과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특히, 심야시간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 효과는 두드러졌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주)KT와 대회 성공기원 '엔택트 천사마라톤대회'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건강 지키GO... 기부도 하GO...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13일 NH농협은행(장기요 본부장), 전북은행(서한국 행장), (주)KT(류평 본부장)와 대회 성공기원 '엔택트 천사마라톤대회'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협약으로 '엔택트 천사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레이스 완주자 1인당 1만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후원에서 지원한다.

후원금은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각각 1,000만원 (주)KT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엔택트 천사마라톤대회'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전국 민에게 알리고 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주기 위

해 참가비 없이 개최되는 비대면 마라톤 대회다. 전 국민 누구나 20~100세까지 본인의 연령에 따라 나눠 참여 가능하다. 하프(21km), 10km, 5km 중 참여 종목을 선택해 전국 어디에서든 개인적으로 기록에 도전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위원장은 "엔택트 천사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회 참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마라톤대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5월 12~20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태권도, 배드민턴, 육상 등 2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며,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이라면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태권도, 배드민턴, 육상 등 2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며,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이라면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2분기 사랑의 헌혈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2분기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한다.

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단체 헌혈 행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두 번째 단체 헌혈이다.

이번 헌혈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14개 시·군이 동참하며,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한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의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관심단계이며, 적정보유량인 5일분 이상 확보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한다는 각오로 이번 헌혈행사를 준비한 만큼,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도 특사경 118곳 대상
특별단속 나선 결과
대기환경법 위반 33곳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팀)이 최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날립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 단속에 나서 도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사경팀은 도내 118개 사업장을 단속해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는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에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

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 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특사경팀과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을 점검했다.

최용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물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